

중격동 수술 환자에서의 기관절개술 변형과 결과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하정훈 · 이도영 · 노동환 · 박민우 · 권택균 · 성명훈 · 김광현

배경 및 목적

흉부외과에서 중격동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때, 기관절개창과 중격동의 연결은 치명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. 이에 중격동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절개술의 변형된 술식을 적용해 보고,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중격동수술 후, 이비인후과에 기관절개술을 의뢰한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. 기관절개술의 변형은 연부조직 박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절개 아래의 지방조직을 제거(defatting)하고, 갑상선 협부를 절개(thyroidotomy)한 후 기관연골을 잘라 기관절개공을 내고, 기관절개공을 피부와 잘 봉합하는 방법(maturation suture)을 사용하였다. 환자의 진단명, 수술명, 기관절개술의 적응증, 기관절개술 관련 합병증, 추적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.

결과

환자의 진단명은 식도암 4명, 심장질환 3명, 폐암, 흉선암, 악성 중피종, 갑상선암 각 1명이었다. 평균 연령은 67.2세(범위: 47 ~ 83세)였으며 남자 8명(72.7%), 여자 3명(27.3%)이었다. Ivor-Lewis operation이 가장 많이 시행된 흉부외과 수술이었고(36.4%), 흉부외과 수술 후 평균 19.8일만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. 기관절개술 시술에 의한 합병증은 없었다. 11명 중 7명이 평균 53.6일 만에 기존 흉부외과적인 질환으로 입원 중 사망하였다. 11명 중 4명은 평균 332.8일 동안 캐놀라 유지상태로 생존 중이다.

결론

연부조직 박리를 최소화하고 기관피부봉합을 이용한 기관절개술의 변형은 기관절개술이 불가피한 중격동수술 환자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.